

분야: 경제

주제: ODA와 세계시민의 역할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공적 개발 원조, 즉 정부 또는 정부의 원조 기관이 저소득국이나 저소득국을 지원하는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 원조를 뜻한다. ODA는 1960년대 미국이 유럽을 대상으로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규모를 키우고 있다.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의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는 회원국의 원조 정책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유럽연합을 포함한 약 30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한국은 2009년 11월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OECD 출범 이후 최초로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뀌었다.

ODA 현황과 문제점

1970년 UN에서 채택된 'the Definition of ODA'에 따라 DAC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0.7%의 공적 원조를 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국민총소득 대비 ODA의 비율이 0.7%를 넘는 국가는 스웨덴(1.04%), 룩셈부르크(0.98%), 노르웨이(0.94%), 덴마크(0.72%) 뿐이다. 한국의 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율은 0.15%로 DAC 가입국의 평균 수치인 0.31%보다 적다.¹

ODA의 또다른 문제점은 ODA의 원래 목적-저소득국의 경제 성장 지원과 인도주의적 지원-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소득국 정부 차원의 ODA는 외교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또는 원조를 해주는 대신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경우, 개발협력헌장에 일본의 국익을 위한다는 목적을 표시하고 있으며², 이에 따라 저소득국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국가 이미지를 만들고 세계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ODA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³

ODA가 실제로 저소득국의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ODA가 시작되고 50여년이 지났으나 아프리카 등의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은 저조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 원조 수혜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ODA는 수혜국 내의 자생력을 망치고 국제 원조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⁴

¹ OECD Data, <https://data.oecd.org/oda/net-oda.htm#indicator-chart>

² MOFA of Japan, 「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
<https://www.mofa.go.jp/files/000067701.pdf>

³ [이슈브리프]일본 ODA 정책: 검토와 비판, 박홍영, <https://www.yeosijae.org/posts/389>

⁴ 「Criticisms of Official Development Aid」, Karl Thompson,

세계시민의 역할

효과적인 ODA를 위해 먼저 주목해야할 점은 '왜 ODA가 필요한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ODA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세계시민의식을 가져야 하는 이유와 일맥상통할 지도 모른다. ODA는 원조 수혜국의 국민들을 같은 지구촌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세계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정부의 ODA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첫 번째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ODA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은 ODA에 대한 관심도가 낮으며 그 목적과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이해가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은 ODA의 비율과 질을 낮춘다.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유일한 국가인 만큼 한국은 두 입장을 모두 이해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ODA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총소득 대비 0.7%의 권고 사항에 준하는 원조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두 번째로 ODA 정책이 오히려 수혜국의 자발적인 성장을 막거나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좋은 목적으로 시행된 원조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수혜국 내의 경제 흐름이나 환경을 망치는 결과를 낼 수 있다. 잘못된 결과에 대한 비판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ODA가 낭비되지 않고 좋은 원조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 일조할 것이다. 원조가 고소득국과 저소득국의 관계 속에서 '갑질'처럼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지, 수혜국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